

제181회국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개회식

국회사무처

1996년9월10일(화) 오후 2시 개식

제18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3분 개식)

○의사국장 정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4절까지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존경하는 윤관 대법원장, 이수성 국무총리,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국무위원과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15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0일 동안의 회기에 들어가면서 이 의사당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의 시선에 큰 중압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 한 사람만의 소회는 아닌 것으로

로 믿습니다.

15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높은 기대와 성원 속에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비 온 뒤의 땅이 더욱 굳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새 출발의 다짐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회는 반세기의 역사 속에서 15대의 연륜을 쌓아 왔습니다. 하지만 의회주의 본령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와 다수의 견해를 조화시키는 전통과 저력은 아직도 만족하리만큼 쌓여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국회는 장기집권과 강권통치에 대한 오랜 투쟁에 이어 최근까지도 과도기적 대립의 시기를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15대 국회에서는 진정한 의회주의 전통을 쌓아 올리는 초석이 놓여져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대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결코 더 이상 타도해야 할 민주주의의 적이 존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주의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국회가 쏟았던 모든 열정과 헌신은 이제 국민화합과 복리의 증진, 그리고 민족의 통일과 세계적 응비를 위해 발휘되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여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되새기면서 15대 국회의 책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수도 서울 도심에서 우리의 미래를 떠맡아야 할 수천의 대학생들이 쓰러져 가는 북한체제의 선전구호를 무비판적으로 외쳐 대며 신성한 배움의 전당인 대학을 점거하여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학생들의 철없는 난동을 목격하면서 우리 모두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십수 년 이 나라를 통치한 두 전직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대에 나와 중형을 선고받는 준엄한 현장을 목도하면서 불행했던 현정사를 짓씌어야 했습니다.

한편 3고 현상의 심화와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인해 국민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가가 서민생활에 근심을 안겨 주고 늘어나는 무역수지 적자도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원도와 경기 북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당한 많은 동포들이 아직도 거처와 생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추석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데 모든 경륜과 지혜를 결집하여 사회를 정돈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새로운 희망을 안겨 드려야 하겠습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내고 이 고비를 재도약의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는 데 건인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와 야의 구별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파를 초월하여 나라를 위한 대국적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이 힘들어하는 이때 국회가 악습과 구태를 되풀이하고 당리적 다툼에 골몰하여 국민을 외면한다면 국민은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영영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15대 국회가 우리 의정사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무와 사명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사당 내에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다면, 저는 불편부당의 입장에서 그것을 거두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정부에 대해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독선과 독주는 의회주의 발전의 저해요인입니다.

격조와 품위를 갖춘 토론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의회가 존재하는 의의이자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와 야는 결코 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경쟁자이지만, 국익을 앞에 두고서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당은 소수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금도(襟度)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끝까지 이해와 설득으로 풀어 나가는 인내의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야당 역시 다수를 무조건 부정하고 대결만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파행과 극한대결은 지난날 오욕의 우리 정치사에서 비롯된 불행한 유산들입니다.

소수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의 견해가 끝까지 합치점을 찾지 못할 때에는, 소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결국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정도가 확립되어져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도 없이 국회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대하는 정성스런 마음으로 국회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심의 등 중요한 국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일정들을 부담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국민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국정의 방향을 재점검하여 맡은바 소임을 보다 훌륭히 완수해 나가는 귀중한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임시국회 폐회 이후 우리 국회는 공식적으로 총 20개의 의원단, 비공식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들이 각종 의원외교 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의장인 이 사람도 11일

간에 걸쳐 호주와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원외교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직접 재확인할 수 있었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역만리 외지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인과 노동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발전을 소망하는 국민들의 성원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고 땀 흘리며 일하는 해외동포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생산적이고 성숙된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옛 성현의 말씀대로 정치인은 국민이라고 하는 물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배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바탕이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존립할 근거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15대 국회의 이번 첫 정기국회가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배전의 분발을 통해 국민과 역사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국회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하여 이번 국회가 국민 대화합과 21세기를 향한 힘찬 민족적 대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지혜와 용기를 발휘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정호영 이상으로 제181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2분 폐식)

교육부장관	안 병 영
문화체육부장관	김 영 수
농림부장관	강 운 태
정보통신부장관	강 봉 균
환경부장관	정 종 택
보건복지부장관	이 성 호
노동부장관	진 넘
건설교통부장관	추 경 석
해양수산부장관	신 상 우
총무처장관	조 해 념
과학기술처장관	구 본 영
공보처장관	오 인 환
정무장관(제1)	김 덕 룡
정무장관(제2)	김 윤 덕
법제처장	김 기 석
국가보훈처장	황 창 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 석 수
외무부차관	이 기 주
통상산업부차관	안 광 구

○제181회 국회(정기회) 집회 공고

일 시	1996년 9월 10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
공 고 자	국회의장 김수한

(1996. 9. 7)

○참석 의원 수(283인)

○내빈 참석자

대법원장	윤 관
국무총리	이 수 성
헌법재판소장	김 용 준
감사원장	이 시 윤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	한 승 수
부총리겸 통일원장	권 오 기
내무부장관	김 우 석
법무부장관	안 우 만
국방부장관	이 양 호